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28)

(閻羅包老)

염라대왕 포청천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연전에 '포청천(包青天)'이라는 연속극이 중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면서 방영되었다. 이 연속극은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 가보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포청천은 포증(包拯)이라는 사람의 별명이다. 송(宋) 인종(仁宗) 때의 명신(名臣)이다.

그는 1062년 7월에 죽었는데 속자치통감에서는 그가 죽었다는 기록과 함께 그의 일생을 짧게 평론해 두었다.

"경오일(23일)에 추밀부사·급사중인 포증(包拯, 999-1062)이 죽었는데, 예부상서를 증직하고 시호를 효숙(孝肅)이라 하였다. 포증의 성품은 분명하고 곧아서 조정에서 되면 군세고 고간하니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며 활하청(黃河清)이라고 하였다." 지개봉부(知開封府) 시절에 경사(京師)에서는 그가 한 정사(政事)를 두고 '관절(關節)'에 가지 못하는 것은 염라포로(閻羅包老)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처럼 그에게 붙은 별명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포씨(包氏)의 활하청(黃河清)이란 뜻의 포청천이고, 다른 하나는 관절부도(關節不倒)였다. 앞의 활하청은 조금은 그를 비웃은 의미가 있는 말이고, 뒤의 관절부도는 긍정적인 평가였다.

활하청이란 활하가 맑아진다는 말이다. 활하는 황토(黃土) 고원지대를 지나서 흘러 기다리기 힘들어 빠져 들어 하는데, 한반도의 두 배나 넓은 황토지대를 거쳐 오는 바람에 물이 항상 타(濁)했다. 그래서 우리의 서해, 중국의 동해인 활해(黃海)는 말 그대로 바닷물이 황토로 누렇게 변해 버린 것이다. 이런 활하의 물이 맑아지는 것을 두고 활하청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상상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다른 말로 우리도 익숙하게 쓰는 백년 하청(百年河清)이라 말이 있다. 활하의 탁한 물이 백년을 간들 맑아지겠느냐는 것이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이다.

그런데 포증에게 활하청이라고 별명을 붙였으나 그의 행적을 비록 활하의 물에 비유한 것이지만 당시의 혼탁한 정세(政勢)를 빗댄 말이다. '포증 선생! 당신이 아무리 부정부패를 척결한다고 그 악단을 쳐도 그 혼탁한 정세가 맑아지겠는가?'라고 비웃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혼탁한 시대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만을 틀림없는 것일 듯하다. 다른 의미로 보면 활하

의 물이 맑아지면 현군(賢君)이 나서 세상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속설(俗說)에 따른 기대이기도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에게 붙인 관절부도(關節不倒)라는 말은 뒷문에 가지 못한다는 말이다. 관절(關節)이란 여기서는 뒷문이란 뜻이고 이 말은 바로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의 눈에 띠지 않게 뒷문으로 찾아가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세력 있는 사람의 뒷배일 수도 있고, 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관절부도라고 하였으나 포증이 북송시절의 도읍인 개봉의 수장(首長)으로 있는 동안 사람들은 뒷문으로 가는 일이 없어졌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정정당당하지 못한 부탁이 그에게는 통하지 않았으니 뒷문으로 갈 일도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청렴한 개봉부(開封府)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어서 그가 죽은 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도 속자치통감에 실려 있다.

"그가 상주(上奏)하여 논의하는 것에는 공평하고 윤당(允當)하였지만 속(俗)된 관리들은 항상 가혹(苛酷)하고 각박(刻薄)한 것을 미워하였다. 하지만 그는 힘써 돈독하고 넉넉하도록 하였는데, 비록 병이 들어 심하여도 아직 일찍이 충성스러움과 용서함으로 미루어 나갔다. 평시에는 사사로운 편지를 주고받은 일이 없었다. 옛날 친구 가운데 가까이하는 무리가 간청(干請, 청탁)한 일이 있었지만 하나 같이 모두 이를 거절하였다. 집에서는 겹하여 의복과 기물과 먹고 마시는 것은 비록 귀하게 되어도 포의(布衣, 편민) 시절과 같았다."

이러한 평가를 보건대 부정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속된 관리들에게는 엄격한 것 대를 들이 대는 바람에 그들에게는 가혹할 정도의 징벌을 내려서 그를 원망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넉넉하게 대하려고 애쓴 듯하다. 그리고 높은 관직을 가진 까닭에 혹 오해를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여 친구들을 사적(私的)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시에 비록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지만 평민들과 같이 겸소하게 생활하였다.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누구에게도 흡집하지 않게 행동하였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죽은 다음에 청렴하고 공정한 것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그래서

포청천(包青天)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더 나아가서 백성들은 그를 신(神)으로 숭배하여 재판의 신(神)으로 받아들였고 나아가서 지옥 염라대왕 가운데 한 명이라고 믿으면서 그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까지 있었다. 그래서 염라포로(閻羅包老)라고 한 것이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러한 평판이 돌았을까?

그가 감찰어사(監察御史)이라는 감찰업무, 특히 정사에 관하여 논평하는 언사관(言事官)이 되어 부당한 처사나 불법을 저지른 관료에 대하여 탄핵하는 업무를 담당하자 본격적으로 탐관오리(貪官污吏)를 짚고(懲治)하기 시작하였다. 황제인 인종(仁宗)에게 '부파한 관리를 임용하지 말아 달라(乞不用贓吏)'는 상소문을 올리면서 부파한 관리는 관리가 아니고 '백성들의 도적(民賊)'이라고 까지 말하였다.

그는 강서전운사(江西轉運使)인 왕규(王逵)라는 높은 관원을 일곱 차례나 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리면서 '그의 마음은 독사와 같다'고 표현하였다. 또 외척인 장요좌(張堯佐)를 세 차례나 탄핵하면서 '백주(白晝)에 나타나는 귀신'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당대의 상당한 권력자이거나 활실과 끈끈하게 연결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그의 행동은 가끔 조야(嘲野)를 진동케 하였다.

우리의 사정(事正) 기관에는 포청천 같은 추상같은 관원이 없을까? 사실 이러한 사람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곧은 말을 하는 사람이란 있게 마련이다. 역시 위에서 보면 이러한 성격의 관원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

다만 그 시대의 최고 권력자인 황제나 제왕이 그러한 사람을 용납하여 수용하고 격려하느냐 아니나에 달려 있을 뿐이다. 흑여 무능하고 부파한 제왕을 만나면 이러한 사람은 여지없이 압박을 받고, 불행한 최후를 맞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살던 곧은 관원은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포청천이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송 인종은 이러한 언로(言路)를 살려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종은 외척과 연결된 사람이 포증에게 탄핵을 받아도 포증을 좌천시키거나 수사(搜查)를 못하게 막은 일은 없었다. 오히려 그러한 수사를 하면 할수록 승진시키는 아량을 보인

것이다. 그 때문에 오히려 포증보다 그를 용납한 인종이 더 빛났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에는 권력형이라고 보이는 선거부정에서부터 권리자의 아빠찬스, 엄마찬스라는 말이 회자(膾炙)된다. 이것이 오탕(汚濁)한 부패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비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해라든가, 불법이 아니라든가 하는 말로 변명을 하지만 그러나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않으며, 복숭아밭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도덕관이다.

이미 이렇게 벌써 몇 달째 이 관절(關節)에 해당하는 불공정 문제로 시끄러운 것은 시비를 거는 사람들의 잘 못이라기보다는 그 당사자가 '공직을 맡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뿐만이 아니다. 송대의 인종이 자기 친인척이 단핵을 받았을 때 어찌 그 친인척을 마음속으로 아끼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살붙이인 인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조의 안녕(寧安)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그들을 잘라내며 그것을 밝힌 포증을 승진시켰다.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 불공정의 의혹을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물러가야 할 사람들에게 온갖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보면 최고 권력자의 도덕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도덕성을 가지고는 정권의 안녕에도 도움이 안 될 터인데 말이다.

주역(周易)의 건괘(乾卦)는 우리 태극기의 4괘(卦) 가운데 하나이다. 건괘는 8괘(卦)로 보면 양효(陽爻)가 셋이지만, 64괘일 경우의 건괘는 양효가 여섯이다. 이 양효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용(龍)을 상징적으로 가리기고 있는데, 맨 아래 효는 초구(初九)라고하는데, 이 효를 설명하는 효사(爻辭)는 잡룡물용(潛龍勿用)이라고 풀이하였다. 물속에 잠겨 있는 용은 용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쓰일 곳이 없다는 것이다. 좀 더 시간이 가서 물위로 머리를 들어내어 현룡(見龍)이 되기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면 그 6효 가운데 맨 위에 있는 효인 상구(上九)는 용 가운데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데, 주역의 반전이 여기에 보인다. 상구는 항룡(亢龍), 즉 맨 꼭대기에 있는 용이라고 말하면서 이 항룡의 운명은 유회(有悔)라고 풀이했다. 즉 '후회함이 있으리라'는 뜻이다.

최고로 올라갔을 때에는 떨어질 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경구(警句)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늘 높은 줄 모르면 안 되는 것이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인(萬人)이 다쳐다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오점(汚點)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지금도 어디엔가 있을 포청천 같은 사람이 이미 드러난 높은 사람들의 오점을 날선 칼로 제거하여 사회를 정화하는 맹활약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온 국민의 바람이 아닐까?

작은 약속(約束)도 어기면 큰 화(禍)를 부른다

안동씨짜증회협의회 회장
운서(雲瑞) 권기호 權基浩

과거시험(科舉試驗)은 조선시대(朝鮮時代) 양반들의 출세(出世)와 높은 관직(官職)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급제시험(科舉及第試驗)을 거쳐야 한다. 과거시험은 현재 공무원(公務員)의 행정(行政) 사법(司法) 시험(試驗)보다 쉽고, 어려움을 구별(區別) 할 수는 없다. 과거급제시험(科舉及第試驗)을 위해서는 한자 3~4만자(萬字)를 쓰고 외우고 불철주야(不撤晝夜) 노심초사(勞心焦思)하며, 어려운 난관(難關)을 극복(克服)하며 열심(熱心)히 공부하여야 한다.

삼년(三年) 주기(週期)로 실시되는 과거시험 날짜가 가까워지면 응시(應試) 준비(準備)를 위해서 하나하나 챙기고 점검(點檢)하여 의관(衣冠) 정장(正裝)을 하고 한양(漢陽)길을 출발(出發)하게 된다. 한양천리(漢陽千里)길을 가려면 옛 산길 따라 주야간(晝夜間) 몇 날을 걸어야 한다.

몸도 지치고 피로(疲勞)하여 희망(希望)과 기대(期待)를 가슴에 품고 열심(熱心)히 걸어서 새벽녘에야 겨우 한양(漢陽) 말죽거리에 도착(倒着)하게 된다. 장도(壯途)의 한숨을 쉬 무렵 갑자기 소나비가 쏟아져 그칠 기미(幾微)가 보이지 않고 계속(繼續) 비가 내려 조급성(早急性)이 나기 시작한다.

원래 선비는 언제 어디를 가든지 갈모(笠帽)는 필수품(必需品)으로 꼭 소지(所持)하고 행차(行次)를 하지만 종각 선비는 고향(故鄉)에서 출발할 때 모든 소지품(所持品)은 준비하였으나 갈모(笠帽)를 챙기지 못하여 당장(當場) 큰일이 났다.

과거시험 시간(時間)은 가까워 오는데 비를 맞으며 갈려고 해도 옷은 젖으면 시간이 지나면 마르지만 것은 비를 맞으면 쭈그려져 못쓰게 되고 만다. 관(冠)을 쓰지 않고 장안을 다닐 수 없을 뿐 아니라 시험장에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비는 그칠 기미(幾微)가 없어 혹시(或是)나 하고 누구라도 만나기 위해 이집 저집 어슬렁거릴 때 한 노옹(老翁)이 "젊은 선비 누구를 찾소?" 하니 선비가 반갑게 하는 말이 "내가 오늘 과거시험장(試驗場)으로 가는 길인데 계속해서 비가 내려 갈모(笠帽)를 빌리려고 서성거리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딱한 사정(事情) 이야기를 들은 노옹(老翁)이 "그럼 내 갈모(笠帽)를 빌려 줄 테니 과거시험을 잘 치르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저기 앞뜰 넓은 곳이 내 집이니 꼭 가져다주고 가세요."라고 굳게 당부(當付)를 하였다.

갈모(笠帽)를 빌린 젊은 선비는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빠른 걸음으로 경복궁(景福宮) 근정전(勤政殿)에 도착(到着)하니 많은 선비들이 각자 자기(自己) 자리를 찾기에 분주하였다.

무난(無難)히 과거시험을 마친 후 합격자(合格者) 발표(發表)를 하였는데 명단(名單)에 자기성명(自己姓名)이 없어 정신(精神)을 잃고 안절부절하고 허둥지둥 하면서 귀향(歸鄉)을 서두를 무렵이었다.

"아차 갈모를 둘려주어야지"하는 생각이 선뜻 머리에 스쳤으나 의욕(意慾)과 욕망(慾望)과 용기(勇氣)가 없어져 세상만사(世上萬事)가 싫고 귀찮아 "갈모(笠帽)고 뭐고 애라 모르겠다."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나 다시 과거 시험(試驗)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갔다. 이번엔 경복궁(景福宮) 근정전(勤政殿)에서 좋은 성적으로 영광(榮光)의 1차 시험(試驗)이 합격(合格)이 되었다. 기쁨과 즐거움과 활기(活氣)가 넘쳐 흐뭇한 마음으로 2차 시험장(試驗場)에 앉아 명상(冥想)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앞쪽에서 있던 시험 감독관(監督官)이 저 있는 곳으로 오더니 내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지난번 당신이 내 갈모 빌려갔지?" 하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깨지고, 천지(天地)가 노랗게 변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기에도 너무 부끄럽고, 민망스러워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고맙게 갈모를 빌려주신 분 바로 그 감독관(監督官)이었다.

감독관이 하는 말로 "당신은 필요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시오."하는 말을 듣고 허둥지둥 시험장을 빠져나왔다. 그때 비로소 작은 약속(約束)이 큰 화(禍)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후회를 하면서 내 인생 철학(哲學)을 '잘못 배우고 인생(人生)을 잘못 살았구나!'하는 생각(生覺)을 하며 다시 뉘우치면서 새로운 인생관(人生觀)을 깨닫았다.

나의 작은 약속(約束)은 믿음과 신뢰(信賴), 신의(信義), 결속(結束)다. 다음에 어느 문장이리도 관련(關聯)이 있는 곳이 없다. 요즘 보면 작은 약속이지만 소흘(疎忽)히 생각하고 이행(履行)을 잘 안하는 현대인들이 많다. 깊은 반성(反省)과 각오(覺悟)를 가져야 한다. 작은 약속(約束)이 큰 화(禍)를 얻는다는 교훈(教訓)을 거울삼고 젊은 선비는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송우하나 인물(人物)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約束)이란 작은 약속이나 중요(重要)한 큰 약속도 지키는 것이 상대방(相對方)과 나와의 신뢰(信賴)를 쌓을 수 있는 좋은 인간관계(人間關係)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약속은 상호관계(相互關係)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한번쯤 친구에게는 배려(配慮)를 빼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사소(些少)한 약속이라도 꼭 지켜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작은 약속도 중요(重要)하니 사소(些少)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신용(信用)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認定)을 받게 된다.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임원님께서 납부해 주신 임원회비는 100만 족친의 화합과 발전의 주춧돌이 됩니다. 꼭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대종회 사무처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33237-04-006941

(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 농협: 301-0235-6546-41

(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6개 파종회장들 열한 번째 모임 가져

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안동권씨 6개 파종회장들이 열한 번째 모임을 가졌다.

10월 15일 저녁 7시 안동시 당북동 제비원로 '부창한정식'식당에서 대종회 고문, 파종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는 권계동 대종회 고문을 비롯하여 권인탑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숙동 안동종친회장, 권영건 부호장공파종회장, 권오수 동정공파종회장, 권기수 별장공파종회장, 권중근 시종공파종